(슬라이드 1)

안녕하세요 발터 벤야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 대해 발표하게 된 유동혁 입니다.

(슬라이드 2)

다음과 같이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복제기술의 변화와 복제의 장단점을 살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

먼저 기술 이전의 복제 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예술 작품을 기.술.적.으.로 복.제.하는 방.법.인 주.조.와 인.각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술작품 중 청.동.조.각, 점.토.조.각, 주.화 만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일.회.적.이.었.고, 기.술.적.으로 복제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슬라이드 4)

목판인쇄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림이 기술적으로 복제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세에는 목각과 더불어 동판과 에칭이 생겨났습니다.

(슬라이드 5)

19세기 초에는 석판이 등.장.했습니다. 석.판.인.쇄.가 나오면서 복제기술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돌.에 그림..을 새기..는 것은 나무 판..이.나 동판..에 새기는 것 보다 훨씬 더 집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대량으로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일 새로운 형태로 시장에 내놓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석판인쇄가 발명되고 몇 십 년도 안 지나서 판화는 사진술에게 따라 잡혔습니다.

(슬라이드 6)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그림의 복제과정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임무는 사람의 손을 떠나 눈에 부과되었습니다. 눈은 손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림의 복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속도.와도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되었으므로 촬영장에서 영화 제작자는 배우가 말하는 속도로 영상.을 포착.합니다. 소리의 기술적 복제는 19세기 말에 차수 되었고, 이러한 노력들로 1900년 기술적 복제는 기존의 모든 예술.작품들을 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기술.적 복제의 영향으로 예술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 작업 방식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슬라이드 7)

다음으로 예술복제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기술적 복제는 원작에 대해 수공복제보다 더 큰 독자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사진기의 노출시간이나 앵글을 이용한 사진복제는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술적 복제는 원본이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도 원본의 복사본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복제를 이용해 굳이 미술관에 찾아가서 그림을 직접 보지않아도, 또는 공연장을 찾아가서 음악을 직접 듣지않아도 그림을 볼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8)

그리고 단점으로는, 일회적 현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회적 현존성이란, 예술 작품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지금 여기’라는 뜻인데, 이것이 존속하는 동안 예술작품은 역사에 귀속되기 마련이며, 바로 이 예술작품의 일회적 현존성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변화의 흔적이 없다 인데, 물리적 구조상의 변화나 소유관계의 변화는 물리적, 화학적 분석이나 원작에서부터 비롯해 추적해 나갈 전통의 문제인데, 복제된 것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시공간적 현존성이 손상되고, 작품 고유의 아우라가 붕괴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아우라의 붕괴가 진짜로 단점일까요?

(슬라이드 9)

복제기술은 그 복제된 것을 전통의 영역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복제기술은 복제품들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일회성을 대량성으로 대체한다. 또 복제술은 수용자가 각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복제품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복제된 것을 시의성 있게 만든다.

이렇듯 벤야민은 복제, 즉 아우라의 붕괴를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영화를 예로 들며 아우라의 붕괴를 긍정적으로도 바라보았는데요. 영화의 카타르시스적인 면, 즉 전통문화유산 가치의 청산과 같은 현상은 거대한 역사영화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벨 강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언급하면서, 전반적인 전통의 청산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셰익스피어, 렘브란트, 베토벤이 영화로 만들어질 것이다. […] 모든 전설, 모든 신화와 설화, 모든 종교의 창시자, 그리고 모든 종교까지도 영사기가 비추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영웅들이 영화의 문전에 몰려들고 있다.”